

02 2027학년도 정시

가·나·다군, 세 장을 어떻게 나누나

군이 전략을 정합니다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어디서 확인하나	3
03 어떻게 나누나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군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— 기억으로 쓰면 안 됩니다
- ◆ 어디서 확인하는가 셋 — 요강·어디가·전형계획
- ◆ 다군이 정시의 함정 — 대학이 적어 몰립니다. 가장 먼저 정하십시오
- ◆ 세 칸을 그리고 채우는 표 · 짜는 차례와 점검표

01 · 먼저 사실부터

군이 원서 수를 정합니다

「정시는 세 장이라던데 아무 데나 세 곳 쓰면 되나요?」

아닙니다. 가군에서 한 장, 나군에서 한 장, 다군에서 한 장입니다. 같은 군에 두 곳은 못 씁니다.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 셋이 다 같은 군이면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.

군은 대학이 시험·면접을 치르는 기간으로 나뉩니다. 같은 군의 대학들은 같은 기간에 전형을 치르니 두 곳을 다닐 수 없습니다. 물리적인 제약에서 나온 규칙입니다.

군	어떻게 정해지나	쓸 수 있는 원서
가군	대학이 스스로 정합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	1장
나군		1장
다군		1장

「대학이 스스로 정한다」가 중요합니다. 군은 법이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고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같은 대학이 학과마다 다른 군일 수 있고, 작년과 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그러니 「그 대학은 나군이야」를 기억으로 말하지 마십시오. 그해 요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출처: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. 군 배치는 대학이 정하며 해마다 바뀝니다.

02 · 어디서 확인하나

군은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

저희는 **군별 전국 분포를** 실지 **않습니다**. 까닭을 밝혀 두겠습니다.

저희 정시 자료 **5,261**줄 가운데 군을 확실히 아는 것은 **40개 대학**뿐입니다. 나머지는 자료에 군 칸이 비어 있습니다. 그 상태로 「전국 분포는 이렇습니다」라고 쓰면 **지어내는** 것이 됩니다.

대신 **확인하는 법**을 드립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

#	어디서	무엇이 나오나
1	대학 정시 모집요강	모집단위별 군이 표로 나옵니다
2	대입정보포털 어디가	대학·학과로 찾으려 군이 함께 나옵니다
3	대학 전형계획	요강 전에 나옵니다 — 미리 볼 때

3번이 유용합니다. 정시 요강은 늦게 나오지만 **전형계획은 한 해 전에** 공개됩니다. 군 배치는 대개 전형계획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.

표로 만들어 두십시오

가고 싶은 학교를 **군별로 나눠 적어** 두시면 그게 곧 전략입니다. 종이 한 장에 **가·나·다 세 칸**을 만들고 후보를 채우십시오.

여기서 **문제가 바로 보입니다** — 한 칸이 비었거나, 한 칸에 다 몰려 있거나. **그걸 보고 후보를 더 찾는** 것이 정시 전략의 대부분입니다.

출처: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·전형계획 및 대입정보포털. **저희 자료의 군 칸이 비어 있어 전국 분포는 실지 않았습니**

03 · 어떻게 나누나

세 칸의 성격이 다릅니다

세 장을 같은 무게로 쓰지 않습니다. 군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
군	대체로 어떤가	어떻게 쓰나
가군· 나군	대학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	후보가 많아 고를 폭이 넓습니다
다군	대학이 적습니다	몰려서 경쟁률이 크게 됩니다

다군이 정시의 함정입니다. 대학이 적으니 다군에 쓸 만한 곳이 몇 안 되고, 그러면 모두가 그 몇 곳에 몰립니다. 같은 대학이라도 다군 경쟁률이 유난히 높은 일이 흔합니다.

그래서 다군을 「남는 한 장」으로 쓰지 마십시오. 세 칸 가운데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칸입니다.

충으로도 나눕니다

수시에서 안정·적정·소신을 나눈 것처럼 정시도 나눕니다. 다만 군이 먼저이고 충이 나중입니다 — 군은 못 바꾸고 충은 안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차례	무엇을
1	가고 싶은 곳을 군별로 나눕니다
2	다군부터 정합니다 — 후보가 적습니다
3	남은 두 칸을 충으로 나눕니다
4	한 칸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으로 둡니다

4번을 꼭 지키십시오. 세 장이 다 상향이면 다 떨어졌을 때 그해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. 수시와 달리 정시 뒤에는 추가모집밖에 없습니다.

군별 성격에 대한 설명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. 해마다 대학의 군 배치가 바뀌므로 그해 요강으로 확인하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짜는 차례와 점검표

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. 세 칸을 그리고 채우십시오.

군	후보	총
가군		
나군		
다군		

정시 세 장을 짤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가고 싶은 곳의 군 을 그해 요강에서 확인했는가
- ☐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마다 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
- ☐ 작년 군을 기억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
- ☐ 세 칸이 다 채워졌는가 — 빈 칸이 없는가
- ☐ 다군 을 먼저 정했는가
- ☐ 한 칸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 인가
- ☐ 세 장이 다 상황 은 아닌가
- ☐ 그 자리에 붙으면 갈 것인가

셋째를 특히 보십시오. 군은 대학이 해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. 선배에게 들은 군으로 계산하면 원서를 못 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군 배치를 정리해 파는 자료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요강과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고, 후보가 열 곳이어도 한 시간이면 정리하십니다. 돈을 쓰실 자리가 있다면 「내 점수로 그 자리가 되는가」를 상의하는 것이고, 군을 옮겨 적는 일은 집에서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— 그해 요강을 직접 보시니까요.

05 · 자주 묻는 것

군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다군이 왜 경쟁률이 높은가요?

대학이 적기 때문입니다. 산술의 문제입니다.

가군과 나군에는 대학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. 다군은 그보다 적습니다. 그런데 지원자는 세 장을 다 쓰고 싶어 합니다.

그러면 적은 자리에 같은 수의 사람이 몰립니다. 경쟁률이 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.

그래서 다군에서는 「경쟁률이 높다」를 겁내지 마시고 「실제로 몇 명 뽑는가」를 보십시오. 경쟁률이 높아도 뽑는 인원이 크면 다를 수 있고, 소수 모집이면 경쟁률이 더 튀어 보입니다.

다만 **총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.** 앞서 본 대로 정시 총원율은 중앙값 42%이고 **33%는 한 명도 안 됩니다.**

Q. 군을 옮겨 다니며 눈치작전을 할 수 있나요?

군마다 발표 시기가 다르니 이론상 가능합니다. 앞 군의 결과를 보고 다음 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.

다만 원서는 세 군에 동시에 냅니다. 발표가 순서대로 날 뿐이지, 원서를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 「가군 떨어지면 나군을 바꾸자」는 안 됩니다.

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**총원 단계에서 갈지 말지** 정도입니다. 앞 군에 붙었는데 뒤 군이 더 마음에 들면 **등록을 미루고 기다리는** 판단을 하게 되는데, **이건 위험합니다** — 등록 마감을 놓치면 앞 것도 잃습니다.

세 장을 낼 때 이미 순위를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. 「어디에 붙으면 어디로 간다」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.

한 줄로 남기면

정시는 **세 장이 아니라 세 칸**입니다. 다군부터 정하시고, 한 칸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으로 두십시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. **군 배치는 대학이 해마다 정하므로 이 자료에 개별 대학의 군을 실지 않았습니**다. 반드시 지원 연도의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경쟁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